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3권 14편 상급과 행위의 의

제3권 제18장 1-10절 (행위의 의는 상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

? 성경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흐름 한눈에

칼빈은 성경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다는 사실을 먼저 정직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신 구원이 거룩한 삶을 '거쳐' 완성된다는 '순서'를 말한다는 것이다(1절). 이어서 상급은 일꾼의 품삯이 아니라 입양된 자녀가 받는 유산이며, 하나님이 이미 갚없이 약속하신 것을 행위에 대한 상으로 다시 주시는 것이라고 밝힌다(2-3절). 하나님이 굳이 '상'이라는 말을 쓰시는 까닭은 우리 공로를 인정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고난 속에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려는 것이다(4절). 후반부(5-10절)에서는 '의로운 재판장', '하늘에 쌓는 보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사랑이 제일', '계명을 지키라', '믿음도 일이다', '죄 하나가 불의면 선행 하나도 의' 같은 반론을 하나씩 다루며 같은 결론에 이른다. 상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에서 나오고, 우리의 행위는 용서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절별 정리

상급에 대한 말씀들은 행위를 구원의 원인으로 만들지 않음. 1-4

1.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씀들의 의미

칼빈은 먼저 두 종류의 구절을 모은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구절과, 영생을 행위에 대한 상으로 말하는 구절이다. 그는 로마서 2:6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를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일의 앞뒤 순서를 말하는 표현으로 읽는다. 로마서 8:30이 보여 주듯 하나님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의 단계를 밟아 구원을 완성하신다. 생명에 받아들이시는 것은 오직 긍휼 때문이다. 선행의 경주는 그 생명을 실제로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다. 그래서 신자가 행위에 따라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하거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립보서 2:12)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다. 요한복음 6:27에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뒤 곧바로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라”고 덧붙이신다. 그러니 ‘일하라’는 은혜와 부딪치는 말이 아니라 힘써 노력하라는 뜻이다. 결국 신자가 구원을 만들어 내는 주체는 아니다. 영생은 복음과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될 때 이미 시작된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며 (빌립보서 1:6), 그 완성은 신자가 아버지를 닮아 참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1. 성경은 “행한 대로 갚는다”를 분명히 말한다
2. 그 말은 원인이 아니라 순서를 말한다
3. 생명에 들이시는 것은 오직 긍휼 때문이다
4. 선행은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다
5. ‘일하라’는 은혜와 충돌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6:27

인자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대표 구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5:10

모두가 몸으로 행한 선악에 따라 받는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악을 행하면 환난, 선을 행하면 영광과 평강

⁹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¹⁰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요한복음 5:29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25:34-36

굶주린 자를 먹인 이들에게 “나라를 상속받으라”

³⁴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³⁵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³⁶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잠언 12:14 · 이사야 3:11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칼빈은 두 구절을 합쳐 인용)

잠언 12:14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사야 3: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잠언 13:13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마태복음 5:12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23

마태복음 5:12와 같은 내용의 평행 구절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3:8

각자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로마서 2:6

핵심 구절: '행한 대로'는 원인이 아니라 순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8:30

예정→부르심→칭의→영화, 긍휼의 단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12

“구원을 이루라”도 신자에게 합당한 명령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일하라'와 '인자가 주리라'가 함께 나옴, 은혜 안의 노력

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빌립보서 1:6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2. 상급은 양자가 받을 '기업'임

칼빈의 첫째 답은, 천국은 종에게 주는 품삯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는 유산(기업)이라는 것이다. 유산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양하신 자녀만 누리고, 입양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로 누린다. 성경은 상을 약속하는 바로 그 자리에 '기업', '상속'이라는 말을 함께 쓴다. 영광이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다(마태복음 25:34, 골로새서 3:24). 그렇다면 왜 행위를 함께 말할까? 칼빈은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후손과 복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 해 뒤 이삭을 바치려 한 순종 다음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며 같은 약속을 다시 받는다(창세기 22:16-18). 이미 값없이 주신 복을 행위의 상처럼 다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복의 근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뿐이다.

1. 천국은 품삯이 아니라 유산이다
2. 유산은 자녀라서 받는 것이다
3. 상을 말하는 곳에 '상속'이 함께 나온다
4.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약속을 다시 받았다
5. 상은 이미 주신 복을 다시 주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1: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갈라디아서 4:7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 자녀만 상속한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에베소서 1:5-6

입양 자체가 은혜이고 누림의 이유다

⁵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⁶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4:30

여종의 아들은 상속하지 못한다, 종의 방식으로는 못 받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34-37

행위를 나열하시며 “상속받으라”, 상과 기업이 한 자리에

³⁴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³⁵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³⁶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³⁷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창세기 15:5

이삭 출생 전,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심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8:18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3

명령에 따라 아들을 바치려 채비함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16-18

순종 뒤에 같은 약속을 '상'처럼 다시 주심

¹⁶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¹⁷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¹⁸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국은 종들에게 주는 샅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주는 기업”

3. 상급은 은혜의 선물임

미리 값없이 주신 것을 행위의 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속이거나 놀리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행을 통해 약속이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 골로새서 1:5는 그 소망이 하늘에 쌓여 있음을 복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소망의 근거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베드로전서 1:5도 신자가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받는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상급을 공로로 오해하지 않도록 포도원 품꾼 비유(마태복음 20:1-16)를 주셨다. 칼빈은 암브로시우스 이름으로 전해진 고대 책 「이방인들의 부르심」의 해석을 그대로 빌린다. 마지막 시간에 온 사람이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삯을 받는 것은, 받은 것이 수고의 값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 준다는 해석이다. 또 칼빈은 상으로 약속된 '영생'이 지금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완성될 복을 가리킨다고 덧붙인다(마가복음 10:30, 마태복음 25:34). 바울은 부활 때 이루어질 '양자 될 것'을 '몸의 속량'이라 부르고(로마서 8:23), 베드로는 영생을 '믿음의 상'으로 말한다(베드로전서 1:9).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영원한 죽음이듯,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도 오직 입양의 은혜로 된다.

1. 상의 약속은 소망을 기르는 훈련이다
2. 소망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3. 포도원 품꾼: 같은 삯, 은혜의 선물
4. 상으로서의 영생은 마지막 완성의 복
5. 영생은 끝까지 '믿음의 상'이다

골로새서 1:5

하늘에 쌓인 소망을 복음으로 알게 됨, 근거는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1: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0:1-16

늦게 온 품꾼도 같은 삯, 상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

¹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²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³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⁴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⁵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⁶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

마가복음 10:30

'내세에' 받는 영생, 상은 마지막의 복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5:34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미리 준비된 선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로마서 8:23

부활 때의 양자 됨은 몸의 속량(8:18부터 이어지는 문맥)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베드로전서 1:9

4. 상급을 약속하신 목적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 행위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낮추려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해서 소망과 위로가 없으면 금세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먼저 소유와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시고, 평생 십자가의 훈련으로 이 땅에 기대지 않게 하신다. 바울 말대로 이 세상만 바라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고린도전서 15:19).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을 들어 그리스도 안의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상', '값으심'이라 부르신다. 공로를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가 겪은 불행과 비방을 수고에서 쉼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치욕에서 영광으로 바꾸어 값아 주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하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 불려도 된다. 다만 그 삶이 영광의 원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택함 받은 이들이 그 길을 통해 영광으로 인도된다는 뜻이다(로마서 8:30). 상급을 근거로 행위의 공로를 따지는 '퀘변가'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한참 멀다.

1. 상의 약속은 공로 인정이 아니다
2. 약해서 쓰러지는 우리를 붙드는 위로다
3. 상은 고난과 비방을 바꾸어 값으심이다
4. 거룩한 삶은 원인이 아니라 길이다
5. 상급으로 행위의 공로를 재지 말라

고린도전서 15:19

이 세상만 바라면 가장 불쌍함, 소망이 필요한 이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1

하나님께 받을 '상'을 말하는 구절(6:1 이하 문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후서 6:13

성경이 '보답'이라는 말을 쓰는 전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히브리서 10:35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1:26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로마서 8:30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심, 삶은 원인이 아니라 길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기 때문이다”

5. 상급은 사하심에 근거함

반대자들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디모데후서 4:8)을 들어, 면류관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답을 시작한다. 자비로운 아버지가 먼저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재판장이 누구에게 면류관을 주겠는가? 상 받을 만한 것조차 먼저 받은 것이 아닌가? 칼빈은 여기에 덧붙인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의를 덮고 벌받을 것을 씻어 주셔야 비로소 우리 행위도 의롭다 인정받는다. 성경은 행위가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그 행위마저 찌꺼기로 더럽혀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우리를 낮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행위가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쳐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곳에서 조금 다르게 말하기도 하지만,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낸 글에서는 같은 생각을 보인다. 겉보기에 더 완전한 사람보다, 부족해도 바른 믿음으로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용서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갈라디아서 5:6)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하박국 2:4)를 근거로 들고, 칼빈은 이것이 선행의 의가 오직 하나님의 용서에 달려 있다는 자기 주장과 같다고 본다.

1. 면류관 앞에는 먼저 은혜가 있다
2. 우리 행위도 용서받아야 인정된다
3. 성경은 낮추면서 동시에 일으킨다
4.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생을 '은혜'라 불렀다
5. 선행의 의는 하나님의 용서에 달려 있다

디모데후서 4:8

반론의 근거,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시는 면류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박국 2:4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아우구스티누스 인용 속)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6. "하늘에 쌓아 둔 보물"

누가복음 16:9와 디모데전서 6:17-19는 선행을 장차 누릴 재물처럼, 미래를 위해 쌓는 '좋은 터'처럼 말한다. 칼빈은 성령이 이 말을 하시는 목적을 봐야 뜻이 풀린다고 말한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마태복음 6:21)는 말씀대로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즐거움에 마음을 쏟듯, 신자는 이 삶이 꿈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마음 둘 곳을 하늘로 옮겨야 한다. 이사 가는 사람이 짐을 새집으로 먼저 보내고 잠시 불편을 견디듯, 하늘이 고향이라면 재물을 하늘로 옮겨 두는 편이 낫다. 그 방법은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이에게 준 것을 자신에게 준 것으로 여기시고(마태복음 25:40), 신실한 보관자처럼 넘치도록 갚으신다(잠언 19:17, 고린도후서 9:6). 성경이 이렇게 자주 말하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행위의 가치를 끌어낼 수는 없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잠깐 돌아보실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선행을 격려하시려고 그중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신다. 근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홀이다.

1. 마음은 보물 있는 곳을 따라간다
2. 하늘이 고향이면 짐을 미리 보낸다
3. 하늘로 옮기는 방법은 가난한 이 돕기
4. 주님은 신실한 보관자로 갚으신다
5. 그래도 근거는 공로가 아니라 공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디모데전서 6:17-19

선한 사업으로 장래의 좋은 터를 쌓으라

¹⁷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¹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¹⁹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6:21

보물 있는 곳에 마음, 말씀의 목적을 여는 열쇠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5:40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잠언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은 여호와께 꾸어 드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고린도후서 9:6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7. 성도가 당한 환난에 대한 상급



데살로니가후서 1:5-7은 고난이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며, 고난받는 이에게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6:10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셔서 성도의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첫째 구절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답한다. 이것은 공로의 가치가 아니라 맡아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그리스도가 고난 뒤에 영광에 들어가셨듯 우리도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양에게 찍으시는 표, 곧 자녀의 증표다(갈라디아서 6:17). 바울이 이유를 든 것도 행위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하려는 것이다. 둘째 구절의 '불의하지 않다'는 공정하게 대가를 계산한다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진실성'을 가리킨다. 이 약속도 먼저 값없는 언약이 있었기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주 되뇌던 말을 기억하라고 권한다. 주님이 우리의 채무자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셔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1. 고난은 공로가 아니라 자녀의 표다
2. 그리스도처럼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
3. 바울의 목적은 소망을 굳게 하는 것
4. '불의하지 않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
5.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채무자가 되셨다

데살로니가후서 1:5-7

반론의 근거, 환난받는 자를 안식으로 갚는 공의

⁵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⁶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⁷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반론의 근거,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로마서 8:29

만아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뜻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24:26

그리스도가 고난 후 영광에 들어가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사도행전 14:22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6:17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 자녀의 증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린도후서 4:10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10-11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주께서는 신실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8. 칭의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논리

반대자들(칼빈은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라 부른다)은 고린도전서 13:2와 13:13을 근거로 든다. 사랑이 믿음보다 크니, 더 강한 사랑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칼빈은 먼저 13:2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의롭게 하는 참 믿음과 다른 것이라고 이미 다른 곳에서 설명했다고 말한다. 13:13에서 사랑이 제일인 것은 공로가 더 커서가 아니라, 믿음은 이생에서만 쓰이고 사랑은 영원히 남아 열매가 더 많기 때문이다. 바울의 요점도 서로 사랑으로 세워 주라는 데 있다. 설령 사랑이 모든 면에서 믿음보다 낫다고 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믿음이 의롭게 하는 이유는 믿음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받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무시하는 논리는 왕이 구두수선공보다 훨씬 높으니 구두도 더 잘 만든다는 말과 같다. 짧은 본문 안에서 '믿음'을 왜 다른 뜻으로 읽느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한다. 예언, 방언, 지식 같은 은사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일과 연결되므로, 바울이 13:13에서 그것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묶어 말했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3:14의 '온전하게 매는 띠'를 근거로 사랑이 완전한 의라는 주장에는, 그 온전함은 교회 지체들의 하나됨을 말한다고 답한다.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한다고 양보하더라도, 사랑의 의무를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 길로는 완전해 이를 수 없다.

1. 사랑이 크다고 사랑이 의롭게 하진 않는다
2. 사랑이 큰 이유는 영원히 남기 때문
3.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도구다
4. 왕이라고 구두를 더 잘 만들진 않는다

고린도전서 13:2

반론의 근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13

반론의 근거, 그중의 제일은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골로새서 3:14

반론의 근거,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9. 계명들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

칼빈은 소르본 신학자들이 문맥 없이 던지는 구절에 일일이 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태복음 19:17 하나만 다룬다.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구원에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칼빈은 예수님이 질문한 사람(칼빈은 '율법사'라 부른다)에게 맞춰 답하셨다고 본다. 그는 율법의 의에 익숙하고 행위를 믿는 마음에 눈이 먼 채, 어떤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돌려보내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 보게 하셨다. 행위로 생명을 얻으려면 정말로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럴 수 없으니, 그 차이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자기 처지를 알고 낮아진 사람에게는 율법을 꺼내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태복음 11:28-29)는 은혜의 약속으로 위로하신다.

1. 예수님은 질문자에게 맞춰 답하셨다

3. 행위로 살려면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4. 아무도 못 지키니 그리스도께 피한다
5. 낮아진 이에게는 은혜로 초대하신다

마태복음 19:17

반론의 근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1:28-29

낮아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초대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10. 선행을 의지하는 그릇된 논리

반대자들은 요한복음 6:29가 믿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니, 믿음과 행위를 맞세우는 개혁자들이 틀렸다고 말한다. 칼빈은 짧게 답하고 넘어간다. 믿음은 순종의 공로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가 좀 더 신중하게 다루는 반론은 따로 있다. 초보자들이 흔들릴 만큼 그럴듯하기 때문이다. 죄 하나하나가 불의로 계산되니, 선행 하나하나도 의로 계산되어야 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칼빈은 “사람은 개별 죄가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만 정죄받는다”는 흔한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불신앙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의 답은 이렇다. 행위로 얻는 의는 평생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전한 순종이어서, 한 번만 벗어나도 곧바로 불의에 떨어진다. 반면 불의는 간음이나 도둑질 한 번으로도 하나님의 위엄을 거스른 죽을 죄가 된다. 야고보서 2:10-11 말씀대로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그러니 죄 하나하나가 죽음에 합당하다는 말은 옳지만, 선행 하나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1.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긍휼을 받는 것
2. 의는 평생의 완전한 순종이어야 한다
3. 불의는 죄 하나로도 성립한다
4. 의와 불의는 같은 저울로 재지 않는다
5. 선행 하나로 화목할 수는 없다

요한복음 6:29

반론의 근거, 믿음을 '하나님의 일'이라 부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야고보서 2:10-11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 의와 불의의 비대칭

¹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¹¹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오해와 반론

용어

상급

하나님이 신자에게 약속하신 값음이다. 이 편에서는 품삯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주시는 약속을 뜻한다.

기업(유업)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물려받는 유산이다.

악자(악인)

칭의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이다.

공로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 업적을 말한다.

보속

이 편에서는 행위에 대해 마땅히 치러 주는 값(대가)을 뜻한다.

전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계산해 주는 일이다. 여기서는 의가 우리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말한다.

영화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소르본·퀘변가

소르본은 파리 대학 신학부로 칼빈 시대 로마 교회 신학의 중심이었다. '퀘변가'는 칼빈이 그곳 스콜라 신학자들을 비판하며 부른 말이다.

삼단논법

두 전제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논리 형식이다(8절의 왕과 구두수선공 비유).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성경의 상급 약속은 진짜지만,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 상급은 품삯이 아니라 입양된 자녀의 유산이며, 이미 값없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주시는 것이다.
- 하나님이 '상'을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 속에서 약한 우리를 위로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다.

-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